

# “가족 목숨 앓아간 가슴기 살균제 참사는 진행형”

### 가슴기 살균제 참사 광주전남지역 피해자 간담회

### 광주·전남 사망 100여명... 피해자는 물론 가족까지 고통 정부, 364명 중 221명만 구제... 피해보상으로 이어져야

“사랑하는 내 가족의 목숨을 앓아간 가슴기 살균제 참사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진상조사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8일 광주시 동구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열린 ‘가슴기 살균제 참사 광주·전남지역 피해자 간담회’에서 만난 가슴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의 절규다. 간담회에는 가슴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참석해 자신들이 겪은 고통을 토로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수십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자, 피해자 가족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고 피해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이들이 많다고 입을 모았다. 또 단순 병원비 지원에 그치는 ‘구제’가 아닌 ‘피해보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광주·전남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가슴기 살균제 광주·전남 피해 신청자는 364명(광주 196명, 전남 168명)이다. 이중 정부에서 구제대상으로 인정받은 피해자는 221명으로 전체 신고자의 61% 수준이다.

정부 인정을 받은 피해자 중 57명이 숨졌고, 피해 신청자 중 44명이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채 숨졌

다. 광주에 거주하는 김승환(47)씨는 2013년 12월 알 수 없는 폐렴 증상 때문에 서울의 대형병원에서 검사를 했지만 ‘원인불명의 폐렴’이라는 소견만 돌아왔다.

한번 시작된 기침은 2시간씩 계속됐고 하루 4번 이상 반복됐다.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진 김씨는 직장도 그만뒀다. 폐렴 증상은 그 후로도 6년간 이어졌고 결국 2017년 9월 23일 폐를 이식받아야 했다.

김씨는 2013년 11월 대형마트에서 구매한 가슴기 살균제가 원인이었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됐다. 김씨는 2020년 9월 정부로부터 가슴기 살균제 피해자로 인정 받았다.

김씨는 “시민단체가 대형마트에서 카드로 살균제를 구매한 이들을 대상으로 ‘가슴기 살균제 피해자일 수도 있다’는 문자를 보낸 덕분에 피해를 의심해 볼 수 있었다”며 “대형마트가 아닌 동네의 소형마트에서 구매했거나 현금으로 구매한 이들까지 포함하면 아직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3년전 아내 박영숙(61)씨를 잃은 김태종(70)씨는 “살균제는 피해자 뿐 아니라 가족들까지 아프게 했다”고 울먹였다.

김씨의 아내 박씨는 살균제로 인해 2002년부터 10년 넘게 투병생활을 해왔다. 이중 3년 4개월은 증상이 악화돼 기관지에 구멍을 뚫고 강제로 호흡해야 했다. 박씨는 총 20차례 입원했고 이중 16차례나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았다.

김씨는 “아내는 예고없이 쓰러졌다”면서 “아내와 함께 운영하던 학원 문을 닫고 생업을 위해 화물운송업을 시작했지만 병원비를 감당하기에 버거워 아들 2명 모두 학원에 한번 보내지 못했다”고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어 김씨는 “가슴기 살균제 참사는 피해자 한 사람의 삶이 아니라 피해자 가족들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했다. 하지만 이같은 피해는 수면 위로 드러나지도, 보상을 받을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소장은 “가슴기참사 피해자들은 자신이 피해자인줄도 모르는 경우가 아직도 많다”면서 “살균제 사용에 대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이 있다면 직접 증거가 없어도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가족이 모여 병원 기록 등 가족들의 건강상태를 체크하며, 살균제 제품 사진을 살펴보고 사용여부를 기억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개인, 시민단체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지자체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슴기 살균제는 1994년부터 약 17년간 판



광주시 동구 계림동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8일 열린 ‘가슴기 살균제 참사 광주전남지역 피해자 간담회’에서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소장이 문제가 된 가슴기 살균제 제품을 들어보이고 있다.

매돼다 2011년 생산과 판매가 금지됐다. 정부의 ‘가슴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는 지난해 3월 9개 주요 가해 기업과 7027명 피해자를 대상으로 일괄 타결하는 조정안을 내놓았지만 가장 많은 살균제를 판매한 옥시와 애경은 동의하지 않

고 있다. 또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SK·애경 등의 가해기업을 상대로 진행되는 형사재판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글·사진=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 디지털성범죄 특화상담소 2년만에 문 닫을 위기

### 광주여성민우회 운영...여가부 예산 지원 중단·업무 이관

2년 동안 광주 지역에서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들의 아픔을 보듬어 준 광주여성민우회 디지털성범죄특화상담소(특화상담소)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

8일 광주여성민우회에 따르면 최근 여성가족부는 내년부터 여성폭력지원예산을 120억원 감축하고 디지털 성범죄 특화프로그램 운영 주체를 여성폭력통합상담소(통합상담소)로 이관한다고 밝혔다. 특화상담소는 가정폭력상담소와 특화상담소 등 기능을 통합해 신설하는 상담소다.

광주여성민우회는 지난해 2월부터 디지털 성범죄 특화프로그램을 통해 특화상담소를 운영하며 상담과 캠페인, 정책 제안사업, 성폭력 예방교육사업

등을 맡았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 특화프로그램을 통합상담소로 이관하면 디지털성폭력 대응 전문성과 자원 역량을 잃게 된다는 것이 광주여성민우회 주장이다.

광주여성민우회는 여가부에서 예산을 받아 이 단체를 지원하는 광주시 측에서 통합상담소 이관에 대처할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았다는 주장도 폈다. 또 지난달 30일에는 세부 지침을 보내와 통합상담소 전환 신청 기간인 이달 8일까지 준비 기간을 10일도 채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구나 세부지침 상 통합상담소 전환 조건은 ‘5명 이상의 상담 인력이 있을 것’, ‘가정폭력상담

원 자격증이 있는 인원이 2명 이상일 것’ 등으로, 짧은 기간 내 전문 인력 조건을 맞추기 어렵다고 광주여성민우회는 지적했다.

광주여성민우회 관계자는 “기존 디지털 성범죄 특화 성폭력상담소의 전문성, 역량 등을 무시한 채 갑작스럽게 사업을 중단시켜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기존 운영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디지털성범죄특화프로그램 운영방식을 1년 이상 유예하며, 자격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광주시는 이와 관련, “민·관 협력으로 전문 인력을 충원할 수 있어 오히려 전문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준비 기간이 짧아진 것은 여성가족부의 세부 지침이 늦게 내려와 전달이 늦어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빈대 공포’에 광주 지자체 대책 마련 분주

전국 각지에서 빈대가 잇따라 출몰하자 광주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광주시는 9일 오전 10시 광주시청에서 ‘빈대 확산 방지 대책회의’를 열고 8일 밝혔다. 회의에는 광주시 감염병관리과와 5개 자치구 보건소 관계자, 광주시 감염병지원단 등이 참여한다.

지난 3일, 7일 두 차례에 걸쳐 정부와 전국 17개 시·도가 함께 논의했던 대응 방안을 각 자치구와 공유하고, 신고 방법과 예방법, 방제 방법, 대응 요령 등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회의에서는 오는 13일부터 4주 동안 이어지는 ‘빈대 집중 점검 및 방제 기간’ 동안 시행할 구체적인 점검 방안도 논의하며, 빈대 신고 창구를 국민콜 110과 각 지자체 보건소로 통합한 데 따른

보건소별 신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8일 현재까지 광주시 5개 자치구에서 별도로 방제 대책을 세운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빈대 발생 사례가 아직 광주에서 없었으며, 빈대는 법정감염병을 옮기는 매개체가 아니라 관리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데다 공공장소가 아닌 개인 집까지 일일이 방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각 자치구는 지난달 30일부터 8일까지 숙박업소, 목욕업소, 사회복지시설 등 소독의무대상시설과 관련 협회·단체 등에 방제 강화 협조 공문을 전달하고 질병관리청에서 제작한 빈대 정보집을 배포했다.

한편 광주·전남의 빈대 신고 건수는 없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광주·전남 영하권 추위...첫 서리 관측

절기 중 ‘겨울이 시작된다’는 입동(立冬)인 8일 광주·전남지역에서는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져 올해 첫 서리가 관측됐다.

8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고, 고기압 영향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져 밤사이 지표면이 냉각되면서 광주와 목포에 첫 서리가 졌다. 이날 목포 일 최저기온은 5.6도였고

광주는 3.6도를 기록했다.

9일에는 서해상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어 기온이 점차 올라 낮 최고기온은 20~22도를 보여 평년(아침 최저기온 4~11도, 낮 최고기온 16~19도)과 비슷하거나 좀 더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9일 오후부터는 남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남서해안 방면에서 비가 내리

겠고, 이 비는 광주·전남 전역으로 확대돼 10일 오전까지 5~30mm가 내릴 전망이다.

비가 내린 뒤 10일 광주·전남은 다시 기온이 떨어져 아침최저기온 6~13, 낮 최고기온은 11~16도에 분포하며 이번 주 내내 추운 날이 이어진다고 기상청은 내다봤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기온이 떨어지며 비가 내린 뒤 살얼음이 끼는 도로가 있겠다”고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교육시민단체, 광주 미등록 입시 컨설팅 학원 고발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8일 ‘광주지역 일부 입시 컨설팅 학원이 등록하지 않고 운영해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입시컨설팅 학원 3곳은 학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자기소개서 첨삭, 학생생활기록부 관리, 면접 준비, 진학 상담 등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이들 학원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시 상담과 학생부 종합 프로그램 상담 등을 광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등록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운영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아직도 봉안당에 보관하십니까?

**이제는 자연친화 수목장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자연과 만나는 새로운 삶의 시작  
"수목장"  
미리 준비하세요.

### ★수목장 무료 안치

지역사회의 상생과 복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수목장 무료안치를  
진행합니다.

1. 광주광역시민(인근까지 인정)
2. 본 단체 회원에 가입한 분에 한함

**수목장 장 점**

- 자연과 함께 지속 가능한 친환경 공간을 만듭니다.
- 우리 수목장은 낮은 관리비와 영구적 사용이 가능합니다.
- 365일 관리되어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의 추모가 가능합니다.
- 묘지 관리에 대한 후손들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 광주시내권에서 20분 이내 편리한 접근성을 자랑합니다.

**광주 친환경  
수목장 • 가족장**

**광주 수목장**

**24시간 연중무휴  
☎ 062-449-4446**